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2차(정기)총회 개최



대한 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은 2006년 10월 30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의원 및 정부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총회(정기)를 개최하여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2007년도 사업계획은 “신뢰받는 보증기관 확립”을 목표로 ▲조합원 서비스 혁신 ▲전자조합 구현 ▲인력의 전문화 ▲재무관리 및 채권 관리체계 확립 등 이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건설경기 성장둔화 등의 경영여건을 감안한 긴축편성으로, 200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전이익은 6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찬재 이사장은 “최근의 어려운 국내외 건설환경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2006년 9월말 조합원 5,276개사, 자본금3,986억원으로 성장하였고, 좌당 지분액도 창설당시 82만4천원 보다 8만4천여원이 많은 90만8천50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6년부터는 신용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역시 국내외 건설경제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건축경영을, 외부적으로는 영업활동 창출 및 신용거래를 통한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로 내실경영의 기초를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 이찬재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이영식 이사장이 제4대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신임 이영식 이사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와 인하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주요 경력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항공안전본부장(관리관)을 역임하였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4대 이영식 이사장 취임식



대한 설비건설공제조합은 제4대 이사장 취임식을 지난 11월 2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영식 이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경쟁력 극대화 ▲효율적인 조합시스템 생성 ▲새로운 조합문화 창조 ▲자율과 책임경영 풍토 조성 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신임 이영식 이사장은 “그동안 이찬재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대한설비공제조합의 미래를 위하여 기반을 탄탄하게 닦아놓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함께 힘을 합쳐 우리의 꿈을 소중히 가꾸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이찬재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제4대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이영식 이사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와 인하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주요 경력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항공안전본부장(관리관)을 역임하였다. 